

# 과학적 창조론의 성격규정에 관한 연구

김 기 태\*

1973.  
Lucy, Sean. T.S.Eliot and the Idea of Tradition. London : Cohen and West, 1960.  
Matthiessen, F.O. The Achievement of T.S.Eliot. London:Oxford University Press, 1952.  
Maxwell, D.E.S. The poetry of T.S.Eliot. London:Routledge & Kegan Paul, 1960.  
Milward, Peter. A Commentary on T.S.Eliot's Four Quartets. Tokyo : The Hokuseido Press. 1968.  
Rajan, Balachandra. The Overwhelming Question. Toront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6.  
Schaffer, Francis. How should we then live. New Jersey : Fleming H. Revell Co., 1977.  
Smith, Kristian. Poetry and Belief in the Work of T.S.Eliot. London:Routhledge & Kegan Paul, 1961.  
Smith, Grover. T.S.Eliot's Poetry and Plays. Chicago: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Southam, B.C. A Student's Guide to the Selected Poems of T.S.Eliot. London and Boston:Faber & Faber Ltd., 1981.  
Spender, Stephen. T.S.Eliot. Clinton:Colonial Press, 1976.  
Unger, Leonard. T.S.Eliot:Moments & Patterns. Minneapolis:University of Minnesota, 1966.  
\_\_\_\_\_, ed. T.S.Eliot:A Selected Critique. New York, Toronto:Inehart and Company, Inc., 1948.  
Weston, Jessie L. From Ritual to Romance. California: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Williamson, George. A Reader's Guide to T.S.Eliot. London:Thames and Hudson, 1980.  
Wright, George T. The Poet in the Poem. New York:Gordon Press, 1974.

## 목 차

1. 서 론
2. 본 론
  - [1] 기원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한계
  - [2] 기원논의와 과학
    - (1) 자연주의적 접근
    - (2) 과학적 창조론
    - (3) 기원과학
    - (4) 두모델 방법
    - (5) 세계관의 영역과 과학적 영역의 구분
  - [3] 과학적 창조론의 성격분석
  - [4] 창조의 변증학
  - [5] 창조의 변증학에 있어서의 요건들
3. 결 론

## 參考文獻

### 1. 서 론

「창조나 진화냐」의 논쟁으로 대표되어 왔던 기원논의가 과학적 탐구와 접목되어 논의 되어 온 것은 오래 되었지만, 그 동안 논의 자체가 올바른 접촉점을 못해 왔으며, 지금의 구도 상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양측이 모두 과학적 증거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서로 동일한 과학적 자료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의 초점은 전통적인 과학관에서 생각되는 적절한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 맞추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과학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아직 올바른 궤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기원에 관한 의문의 성격에 대하여 적절한 분석이

\* 부교수(생물학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과학적 활동에 있어서 세계관 내지는 종교적인 동인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과학주의로 대표되는 과학 활동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태도는 기원에 대한 논의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기원 논의에 있어서의 과학의 정당한 역할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창조주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피조계의 기원을 설명함으로써 반진화론 운동을 폄파 동시에 복음 전파를 이루려고 하는 창조과학회의 시도의 올바른 성격을 규정해 보고자 한다.

## 2. 본 론

### [1] 기원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한계

기원 논의에 있어서 혼란상이 계속되어 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논의를 자연과학과 연결시킴에 있어서 여러 그룹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많은 저술들이 자신의 기원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과학자료를 사용하는 논증적인 성격을 담고 있기 보다는, 과학철학 내지는 과학사적인 접근, 또는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고찰들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원 논의에 관련되어서 과학적 시도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인 철학 내지는 세계관적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sup>1)</sup>

이러한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원연구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나타난다. 첫째로, 기원에 대한 접근에 과학적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가장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그룹에서는 나름대로 과학적 접근의 성격과 한계를 규정짓고 나서,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 기원의 문제는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타의 다른 방법 내지는 과정을 통해서도 기원에 대해서 합리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로,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데는 근본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과학을 기원 논의에 관련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사실상 이러한 입장은 진화론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러한 주장들의 타당성을 적절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 방법론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러한 성격으로 이루어 볼 때 과학적 방법론이 기원에 관련된 의문에 대해

1) Norman L. Geisler and J. Kerby Anderson “Origin Science : A Proposal for the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chigan(1987) ; Philip E. Johnson “EVOLUTION AS DOGMA-The Establishment of Naturalism”, Houghton Publishing Company(1990) ; Roland Mushat Frye ed. “Is God a Creationist?”,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1983) ; Peter J. Bowler “EVOLUTION-The History of an Id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 (1989) ; Michael Ruse, “But Is It Science? -The Philosophical Question in the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 Prometheus Books, Buffalo, New York(1988) 등이 이러한 안목에서 저술된 책들로서 본 연구에 참고되었다.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과학을 정의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는 합리성, 경험성, 객관성이다.<sup>2)</sup>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은 과학의 성격에 필수적인 이러한 세 요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워진 과학자 사회의 관행이다. 자연계의 여러 규칙적 현상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을 다른 학문에 비해서 보다 객관적인 것으로 특징 지우는 것은, 과학적 연구의 결론이 법칙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방법론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조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찰되는 자연현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실험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은 감각자료를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우주의 물리적 성질 및 물리적 형태의 유형 등에 국한된다. 이들이 전통적인 과학관에 비추어서 정리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의 특징이며, “과학적”이라는 어휘가 “합리적” 내지는 “객관적”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sup>3)</sup>

그런데 기원논의를 앞서의 의미에 걸맞도록 과학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경우,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제약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생명체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논하려 할 때, 최초의 생명의 발생은 누구에 의해서도 관찰될 수 없었고, 현재로서도 새로운 생명체의 발생은 결코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첫번째 제약이 된다. 결국 그것은 과거에 발생했던 1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에게 이미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객관성이 보장되는 진술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로, 기원의 사건들에 대해서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는 데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 및 초기 조건에 대한 지식의 부재라는 한계를 갖는다. 수십 억 년의 시간에 거쳐 일어났거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창조행위로 생겼거나 간에 그러한 가능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진화론적인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은 현재의 생명현상이나 자연의 상태와는 불연속적인 과거를 설정함으로써 세워진 것이므로 현재의 직접적인 관찰이나 실험들을 연결 시키는데는 한계를 지닌다.<sup>4)</sup>

“창조냐, 진화냐?”라는 논쟁에 있어서 양진영을 절연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상반적인 양대 주장의 각자가 자연과학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이다. 따라서 기원논의를 올바른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기원논의와 과학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2) Del Ratzsch, 김해진 역, “과학철학-자연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1990)의 1장과 8장 참조.

3)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아닌한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과학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과학의 발전을 분석하는 학자들은 과학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매우 이상론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과학을 규정하려는 시도들은 대개 과학에 대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Richard H. Bube, “Seven Patterns For Relating Science and Christian Faith”, 통합연구 5(4) : 11-52 (1992) 참고].

4) 화학진화설에 있어서 환원성 대기를 가정한다든가, 자연발생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2] 기원논의와 과학

### (1) 자연주의적 접근

자연주의자들의 견해는 기원의 문제가 순수하게 과학의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의한 연구만이 확실한 결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연과학의 특징에 맞는 자연주의적, 무신론적 진화론만이 과학이론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sup>5)</sup>

1. 자연과학은 자연 법칙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자연과학은 자연법칙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3. 자연과학은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검증 가능해야 한다.
4. 자연과학의 결론은 잠정적이므로 단정적일 필요는 없다.
5. 자연과학은 반증(falsification)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과학적 창조론(scientific creationism)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없으며, 종교적 신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無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창조와 같은 개념은 자연법칙의 안내를 받는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간섭에 의존하므로 상기의 1, 2, 4, 5의 자연과학의 특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창조에 대한 논의는 초자연적인 원인을 필히 수반해야 하므로 자연법칙의 영역을 넘어서며,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에 대한 논의는 하나님과 같은 신화적인 조물주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고, 그들의 논리의 원천이 자연의 관찰이 아닌 성경이라는 사실은 그것의 과학성을 인정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해석에 입각한 주장으로서, 그들의 결론은 단정적이고, 예측을 하지 않으므로 반증 내지는 실험적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진화론은 초자연적인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서 생명의 발생과 종의 분화 및 생명체의 적응과정을 자연의 과정으로서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비록 지금은 관찰되지 않지만, 대진화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자연의 실험을 거쳤으므로 그 결과로서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경험적 검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진화론이 갖고 있는 현재의 과학법칙들과의 부조화를 논하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지금의 생물계가 바로 “자연의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관찰을 근거로 진화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경험적 검증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견해는 결코 진화론자들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유전학의 법칙과 생물속생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생물계를 관찰해서 그것이 조물주에 의해 종류대로 창조된 생물들의 집합이라는 결론에 도달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연의 실험”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연을 신격화하고 있는 매우 비과학적인 요소

5) 이는 미국 Arkansas주에서 1982년에 있었던 재판에서 과학의 특징으로서 주장되었던 내용으로서, Norman L. Geisler and J. Kerby Anderson, “Origin Science”에서 재인용하였다.

6) Ernst Mayr, “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1982).

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생물계가 “조물주의 실험”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코 합리적일 수가 없다. 결국 이러한 주장에서는 보편적 의미에서의 “과학적 논리”를 찾을 수가 없고, 자연주의라는 철학 내지는 세계관적인 논리만이 발견된다. 따라서 진화론만이 과학적 특징에 부합되므로 유일한 과학적 견해라는 주장은 지나친 독단이다.

### (2) 과학적 창조론

두번째의 입장도 기원논의가 역시 과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과학적 증거는 진화론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으며, 오히려 창조론을 증거하고 있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과학적 창조론(Scientific Creationism)”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면서, 종교적 입장의 개입이 없이도 과학적 증거는 우주 만물이 조물주의 개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적 창조론은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그러한 과학적 증거로부터의 추론들”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연주의적 진화론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sup>7)</sup>

1. 우주와 에너지, 그리고 생명체는 무(無)로부터 갑작스럽게 창조되었다.
2.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여러 종들이 출현할 만큼의 충분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3. 처음 창조된 생물 종의 변화는 오직 고정된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4. 원숭이와 사람의 기원은 다르다.
5. 노아의 홍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격변설에 의해 지질학을 설명할 수 있다.
6. 지구와 생물의 출현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수 천 내지 수 만년).

과학적 창조론자들도 상기의 주장에 대해서 두 부류로 갈라진다. 우선 6가지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을 특별 창조론(special creationism)이라고 하며, 1~4까지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입장을 진행적 창조론(progressive creationism)이라고 한다.

이들은 창조론이 비과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sup>8)</sup> 우선, 과학적 창조론이 하나님, 창조, 종류와 같은 종교적 개념 내지는 초자연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자연법칙을 근거로 하는 과학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반론을 제기한다. ① 하나님, 창조, 종류와 같은 개념은 꼭 종교적 개념에만 국한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Aristoteles의 부동의 동자(不動의 動者, unmoved Mover)와 같이 이론적 개념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궁극적인 최초의 기원이라는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② 과학적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유도되었는가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

7) Arkansas주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함께 가르치도록 규정한 입법에서 창조과학(creation-science)을 정의한 내용이다.

8) 이러한 반론은 J. P. Moreland, “Christianity and the Nature of Science :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chigan(1989)의 6장에 분석되어 있다.

이다. 예를 들면, F. A. Kekule의 benzenering 구조가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꿈에서 착안하였다고 해서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③ 만일 과학이 그의 자연주의적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존재해서 창조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사실일 때 과학은 늘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함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창조주의 존재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원인이라는 초자연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과학(이를테면 creascience)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창조 과학은 아무런 예측을 하지 않으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①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과학적 주장들은 얼마든지 있으며, ② 실제로는 창조 과학도 예측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경험적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예를 들면, 과학적 창조론은 하나님에 의한 종류대로의 특수 창조 및 노아 홍수와 같은 대격변에 근거하여 화석 기록의 발견 양태에 대한 예측과 검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창조 과학자들은 편협하고, 그들의 이론을 재구성함에 있어서 폐쇄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① 과학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과 그들의 과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② 이러한 편협성의 문제는 심리적 객관성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것은 인식론적 객관성과는 다른 것이며, ③ 편협성과 폐쇄성은 창조 과학자들만의 특성은 아니며, ④ 창조 과학자들도 그들의 주장을 재조정해 왔다고 주장함으로써 반박한다. 즉 현재의 창조론은 18, 19세기의 주장과는 엄연히 다르므로 주장의 수정에 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입장은 보편적인 과학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한 기준으로 보더라도, 보통의 과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관행에 비추어 보면 창조론은 전혀 모자람이 없는 과학적 설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의 주장을 “과학적 창조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과학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와 특징에 비추어서 정당화하기 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통상 수행되는 과학분야의 관행에 의존해서 정당화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정당한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절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주의적 발상의 한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경의 계시가 기독교적인 기원관의 핵심이 되고 있고, 어쩌면 그것을 믿음으로써 기원에 대한 기독교인의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충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학 우위의 논리에 쉽게 맡겨 버림으로써 계시와 인간 이성 사이에 권위의 전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주장의 큰 약점이며, 기독교인 학자들에게서 과학적 창조론이 비판을 받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sup>9)</sup>

9) C. H. Malik, 신정숙 역, “대학의 위기” 성경읽기사(1988)의 4장에서 창조과학이 과학주의적 발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 (3) 기원과학

이러한 입장에서는 기원의 문제가 과거에 단 한번만 일어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과 경험을 근본으로 하는 통상의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를 “작용 과학(operation science)”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느 것이 과학적 주장이고 어느 것은 종교적 주장이라는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거에 단 한번만 발생했던 자연적 사건에 대해서 논리적 검증을 하는 과정을 “기원과학(origin science)”으로 정의할 것을 주장한다.<sup>10)</sup> 이러한 일회적 사건을 일차적 원인(초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창조론이고, 이차적 원인(자연적 원인)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대진화설(macroevolutionism)이라고 규정한다.

창조론이 생명의 합목적적 구조를 보고 지능을 가진 존재가 원인이 되었음을 추론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현재는 과거의 열쇠라고 가정하는 동일과정설에 입각해서 자신의 이론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유비(analogy)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원과학의 영역에서 창조론은 진화론과 같이 정당한 과학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양자는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원과학에 있어서 어떤 설명(origin-scenario)의 진위는 작용과학에서와 같이 관찰과 실험검증을 통한 경험적 접근을 증시하는 방식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균일성의 원리<sup>11)</sup>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설명이 더 타당성(plausibility)을 갖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원논의에 있어서 보편적 의미의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원논의를 기원과학의 틀 속에서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원에 관련된 여러 주장들 사이에 논쟁의 접촉점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논리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을 과학교과 내에서 비교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창조론을 세움에 있어서 성경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원과학은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에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창조론 운동을 수행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자연주의자들이 어느 정도 수긍해줄 지에 대해서는, 자연주의자들의 입장이 합리성보다는 막연한 반종교적 성향에서 정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볼 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4) 두 모델 방법

창조론이나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유도된 가설이 아닌 철학적 내지는 세계관적 주장이

10) Norman L. Geisler and J. Kerby Anderson “Origin Science : A Proposal for the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chigan(1987) pp. 13~18.

11) 현재의 관찰만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원에 관련된 설명들이 현재의 관찰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균일성의 원리의 핵심이다.

라고 보고, 이들을 모델화하여 대칭을 시킨 후 객관적인 과학법칙들을 통하여 비교하자는 주장이다.<sup>12)</sup>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은 수준에서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기원과학을 따로 정의하자는 앞서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논의되어 온 기원에 대한 설명들을 세계관으로서의 유신론적 창조론과 자연주의적 진화론을 기준으로 양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두 모델 방법(Two-Model Method)이라고 한다.

두 모델 방법은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기원에 대한 설명들은 모두 초자연적인 조물주에 의한 창조로서 설명하려는 것과 자연선택이라는 우연에 의한 점진적 과정으로 설명하려는 것으로 양분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주장을 모델화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법칙들을 통하여 비교함으로써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기원에 대한 설명들을 큰 관점에서 「창조나 진화나」로 환원시켜 양분하는데는 큰 이론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제3의 입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방법의 목적이 기원의 문제를 탐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비교하는데 있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이것이 진화론에 대해서 전통적인 창조에 대한 신앙고백을 수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통상의 과학자들이 창조론은 비과학이요 진화론만이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진화론에 포함되어 있는 전과학적(前科學的: pre-scientific) 요소들을 지적하고, 기원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진화론과 창조론을 동등한 모델의 수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두 입장을 두고서 전통적인 과학관에서 인정되는 객관적인 과학법칙들의 양 모델에 대한 적용성을 기준으로 해서 두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모델 방법에 있어서의 논증은,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A 또는 B 밖에 없다면, A가 오류임을 입증하면 B가 사실이 되며, B가 오류임을 입증하면 A가 사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들은 다른 한편의 주장을 긍정하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사실 두 모델 방법은 자신의 주장만이 과학적이라고 보는 진화론이 거의 대부분 현재의 보편적 과학법칙을 초월하는 무리한 추측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과학적 접근의 불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는 창조론을 변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모델 방법은 주로 진화론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 창조론을 과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거하려는 시도가 미흡할 수 밖에 없어서 이것이 진화론의 옹호자들에게서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기원논의에 있어서 세계관이나 종교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고, 과학의 역할을 제한하면서도 과학의 장점을 창조론을 옹호하는데 적절하

12) R. L. Wysong, "CREATION-THE EVOLUTION CONTROVERSY", INQUIRY PRESS, Midland, Michigan(1976)의 3장.

게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러한 틀에서 비교함에 있어서 양자의 개념들이 1:1로 잘 대응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틀을 전문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를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에서는 기원의 문제가 본질적으로는 과학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어째서 두 모델 방법의 논점이 진화론의 비판에 치중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두 모델 방법의 논증이 진화론 비판에 맞추어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진화론이 스스로를 과학적 탐구와 추론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의 내적 통일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논의의 주된 초점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5) 세계관의 영역과 과학적 영역의 구분

기원에 대한 설명에는 세계관적 질문과 과학적 질문의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게 되는데, 기원논쟁이 올바른 접촉점을 갖을 수 없었던 요인으로서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입장이다. "why?"와 "who?", 즉 자연의 존재목적과 그것을 존재케 한 주체에 대한 의문은 세계관 및 종교적인 답변만이 가능한 세계관적 질문으로서 과학은 관계할 수 없으나, "how?", "when?", "what?", 즉 자연형성의 메카니즘과 그것에 걸린 시간, 구체적 대상에 대한 의문은 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합리적 해답이 제시되어야 할 과학적인 질문으로서, 종교나 세계관적인 요소는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sup>13)</sup>

따라서 창세기의 계시는 "how?", "when?", "what?"에 대해서 과학적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을 과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 현재의 과학과 무리한 접목을 시키려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when?"과 "how?"에 대한 의문에 해당하는 연대문제, 우주, 지구, 그리고 생명체의 출현 순서, 지구의 형성 및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 메카니즘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과학적 설명으로 채택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한다. 진화론의 무신론적인 자연주의적 관점 역시 이것은 세계관이므로 과학적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우주, 지구, 생명 그리고 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서는 자연적 메카니즘만이 논의되어야 하므로, 오래된 우주와 지구의 연대에 대한 증거 및 생물학적 진화 개념을 뒷받침하는 분자생물학적 및 계통발생적 증거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세워지는 진화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창조론자들은 초자연적인 간섭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만이 창조주의 창조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창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기원논의와 과학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진행적 창조론이나 유신론적 진화론을 옹호하고 있다. 즉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

13) Richard T. Wright, "Bi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Christian College Coalition, Harper San Francisco(1989) 제 4장.

해서 창조되었지만, 그 실제적인 과정은 성경의 기록과는 달리 과학의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화학진화 및 변이와 환경의 선택을 통한 중분화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원논의에 있어서 세계관이 갖는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기원논의에 있어서 실제로 과학과 세계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창조란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한 것과 자연법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적절한 창조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기원의 문제가 과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와, 이처럼 과학적 접근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갖는 사안에 대한 세계관의 영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과학적 증거들이, 진화라는 메카니즘을 배제하는 성경적인 세계관 하에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sup>15)</sup> 즉 과학적 증거 또는 사실과 그것을 해석하는 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세계관이 그러한 해석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어서, 기원논의가 세계관적 논의와 과학적 논의로 쉽게 이분화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유도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죄와 죽음, 그리고 피조계에 있어서 인간의 대표성에 대한 신학에 부합되기가 어렵고, 성경의 기록을 많은 부분에서 상징화시킴으로써 커다란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다 더 세심한 논리전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과학적 창조론의 성격분석

이상과 같이 기원 논의와 과학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기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양자의 상관 관계에 대한 이해도 매우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지금 한국의 창조과학회가 그들의 기원관을 제시하는 논리적 틀로 삼고 있는 “과학적 창조론(scientific creationism)”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창조론”은 Henry M. Morris박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국의 창조과학회(Institute of Creation Research)의 모든 논리를 대변하는 틀이다. “과학적 창조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기원논의에 있어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비가 “과학 대 신앙”이라는 구도로 고착되어 왔던 것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 과학이 합리성을 대변하고 신앙이 불합리성을 대변하는 지성계의 분위기 속에서 창조론을 단순히 성경에만 기초하여 논해서는 대중적 설득력이 결여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반진화론 운동을 전개하면서 과학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 David L. Wilcox, “A Taxonomy of Creation”, J. of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38 : 244-250(1986)에서 저자는 완전한 유신론은 자연법칙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의 적용방향도 모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꼭 초자연적인 창조만을 하나님의 창조행위로 보는 것은 정당한 유신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15)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생물들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자연선택에 의한 대진화론보다는 유전학의 법칙과 인과율의 법칙에 더욱 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이라는 수식을 붙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창조과학회가 정회원의 자격요건으로 자연과학 분야의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창조과학회의 활동을 자연과학과 구체적으로 관련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창조과학회의 기본 신조에는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담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수호를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과학과 신앙의 관련 구도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혼란된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 그것은 창조과학회 자체에서 과학의 성격에 대해서 정리된 입장이 없고, 기원논의를 과학과 관련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된 여러가지 입장이 혼재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창조과학회에서는 과학적 창조론을 “창조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그러한 과학적 증거로 부터의 추론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용어에서는 “계시에 힘입지 않고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 세운 창조에 대한 논의”라는 의미가 유추된다. 창조론을 이야기 하면서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우선 ‘과학과 신앙’이라는 대결 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며, 창조론을 사람들에게 신뢰할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적 증거나 믿음을 배제하고 오직 과학적 사실들과 논의에만 의존해서 창조모형을 세워야 한다는 발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용어에서 풍기는 기본적인 뉘앙스는 ‘과학은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라는 과학주의적 발상이다. 과학적 창조론이 그러한 발상을 담고 있고, 그러한 것을 의도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식의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면, 창조과학회의 시도가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은 오직 과학적 사실들과 논의에만 의존해서 창조모형을 세우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일단 과학적 사실들과 논의에 의해서만 창조모형을 세운다는 것은 어떠한 계시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창조모형을 고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계시가 없이 인간이 스스로 궁극적 의미에서의 창조의 개념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점의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교 문화가 갖고 있는 대표적 창조신화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 성경을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과학적 창조론 이외에는 실제로 과학과 관련시킨 창조론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창조론의 목적이 과학의 영역에서 창조모형을 세움으로써 진화론을 배격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는 물론 구속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데에 맞추어져 있는데, 과학적 창조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창조모형과 진화모형은 근본적으로 대칭을 이루거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아서 과학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양 진영이 기원 문제에 대해 논쟁을 하면서 “진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즉 “대진화”와 “소진화”의 개념 구분을 잘 하지 않고 논쟁을 함으로써 논쟁에 있어서 접착점을 잃고 있다. 그리고 양 진영은 각각 실험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가정들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이 가정들은 양 진영이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 가정들의 차이는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도 해석에 있어서 현저한 시각의 차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 진영은 서로 관심의 내용이 다르다. 창조론자들은 기원 문제에 있어서 “why?”와 “who?”에 대한 해답을 주로 추구한다. 창조론 모델에서는 원칙적으로 “how?”에 대해서는 과학적 해답이 불가능하므로 그에 대한 해답도 “who?”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대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진화론자의 주된 관심은 “how?”에 대한 것이고, 심지어는 “why?”와 “who?”에 관련된 질문도 “how?”로 대체하려는 무리를 범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창조론 만으로는 -그것의 정의 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핵심을 이루는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창조론을 제시하게 되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성취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어떤 초자연적인 일차적 원인에 의한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하더라도, 그러한 인식을 통하여 그 일차적 원인이 성경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논리를 전개하는 가운데 자주 성경과 하나님을 언급하게 되는데,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이름 하에서 성경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받고 있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과학적 창조론만으로는 유신론적 진화론 및 진행적 창조론이 갖고 있는 약점인 죄와 죽음, 그리고 피조계에서 인간의 대표성이라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혼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용어는 창조과학회의 목적과 실제 활동을 대표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창조과학회의 목적과 실제활동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창조과학회의 논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성격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창조과학회가 과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지와 성경을 창조과학회의 논리의 근본적인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것, 창조과학회의 목적이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4] 창조의 변증학

앞서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틀이 창조과학회의 목적과 논리들을 뒷받침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창조과학회의 논리와 제활동들을 뒷받침하는 틀로서 “창조의 변증학(apologetics for the Creation)”이 적절한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한 이유의 첫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과학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만큼 과학에 대하여 중속적인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성경의 계시도 역시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성경의 계시에 과학의 발견들을 중속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창조의 변증학’은 여타의 입장에 비하여 강점을 갖는다. 따라서 ‘창조의

변증학’이라는 틀은 일단 상식화되어 있듯이 과학에 의해서 성경의 창조론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학과 무리하게 연결 지으려고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임으로써 반대 진영에 공격의 실마리를 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둘째로, ‘창조의 변증학’에서는 과학적 논의만이 아니라 철학적, 신학적, 역사학적인 논의들을 모두 종합하여 기원논의에 접근할 수가 있다. 실제로 진화론의 등장과 과학의 발전의 당연한 귀결이었다기 보다는 중세의 잘못된 창조주관이 바탕이 되었고, 당시의 자연신학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sup>16)</sup>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이 이루어질 때 진화론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장 적절한 창조론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창조의 변증학’은 기원논의에 대해서 포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의 범위를 과학의 영역 밖으로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그 동안 창조론자들은 과학적 창조론이나 두 모델 방법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창조의 변증학’의 역할들을 해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원 논의의 성격을 무시하고서 굳이 과학적이라는 의미를 도입하거나, 자연주의적인 진화론과 무리하게 대칭을 구성하려 함으로써 비판의 소지를 남기는 틀들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진화론이 무신론적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이론이므로 기독교적인 창조관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이론의 과학적 한계와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그것을 상대화 내지는 무용화시키려는 시도는 기독교 변증학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과학적 논의로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기원논의를 세계관적인 논의로서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넷째로, 「창조의 변증학」은 창조과학회가 기원논쟁을 벌이는 궁극적인 목적인 기독교 복음의 증거에 가장 적절하다. 두 모델 방법이나, ‘과학적 창조론’은 모두 창조론적 기원논의가 성경 또는 기독교 신앙과 분리되어야만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합리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 실제로 우연적인 과정의 결과로서의 진화를 반대하면서 생명의 형성에 어떤 지능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더라도 그것이 꼭 성경의 하나님일 것이라는 결론으로 유도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예는 많이 있다. 따라서 과학적 모델로서의 창조론은 그 자체로서 복음에 대한 연결력이 없으며, 창

16)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섭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주지론적인 중세의 창조주관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이 피조계의 질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가능하다는 자연신학의 단순한 논리는 질병의 존재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생태계, 혼적기관 등의 피조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시할 수 없었다. 이 때 이차적 원인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과학계의 새로운 움직임이 맞물려 진화론은 등장하게 되었다. 신앙과 과학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저술들에서 이러한 관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고된 서적들은 John Hedley Brooke, “Science and Religion: Some Historic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Great Britain(1991); David G. Lindberg and Ronald L. Numbers ed., “God and Nature: Historical Essays on the Encounter between Christianity and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1986)이다.

조과학회의 목적의 일부만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창조의 변증학은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기원논의를 통해서 다루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창조론을 과학의 틀로서 제시하려 했던 ‘과학적 창조론’은 실제로는 창조론이 성경 또는 기독교 신앙과의 엄밀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과학적 창조론이 주장하는 것이나 두 모델 방법은 「창조의 변증학」에서 추구되는 진화론의 비판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들이 되는데, 창조의 변증학이라는 범주에 포함되어야만 복음증거의 목적에 잘 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로,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들에 대해서 적절한 의미를 파악하고, 과학적인 개념에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의 과학적인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도 ‘창조의 변증학’이라는 틀 속에서는 적절한 과업이 된다. 즉 창조론의 기본 골격이 성경과 그에 대한 신앙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20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주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을 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창조과학회가 내건 목적에 대해서 더욱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의 변증학’이라는 틀에도 약점은 있다. 이러한 틀로서 반진화론 운동 내지는 창조론의 합리성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창조에 대한 확신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학 대 신앙이라는 대결 구도에 익숙해 있는 학자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호소력을 갖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외적인 기원논의에서는 ‘기원 과학’이라는 것을 따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5] 창조의 변증학에 있어서의 요건들

사실상, 기원의 문제에 대한 한 사람의 입장을 결정하는데는 믿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옹호하려는 것은 창조주는 없다는 믿음 때문이며, 창조주에 대해서 과학적 창조론이라는 과학철학적으로 무리한 개념을 동원해 가면서 증거하려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3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우리의 지식으로 삼는 것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 과학적 사실을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과학자를 믿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유일한 존재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을 목격한 유일한 존재이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인 의미의 진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창세기 1장을 통하여 기원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상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고 있는 방식에서 본다면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창조에 대한 믿음은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결국 기원논의를 과학적 구도에서 논하려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시도이며, 그러한 시도는 결코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끌지 못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원논의는 과학 의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서 과학의 연구결과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학의 연구결과들을 창조에 대한 변증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창조론적 주장이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과학적 변증의 정당한 영역은 성경에도 계시되었고, 과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로 제한되어야 한다.<sup>17)</sup>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와 용어를 잘 정의해야 하며, 가정들(전제들)을 인식해야 한다. 필요한 증거 자료들이 불충분할 때는 가설 또는 믿음에 의해 해석이 좌우되기가 쉬우므로, 자료와 그에 대한 해석은 분리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들이 확보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해야 한다. 최근의 과학적 결론들을 성경과 무리하게 조화시키려 해서는 안되며,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sup>18)</sup> 과학적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관적 요소들을 잘 파악해야 하며, 설득하려는 대상에 따라서는 기원논의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과학적 사안과 세계관 내지는 ‘신앙적 사안’을 분리해서 다루려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창조론을 제시하려는 대상에 따라서 그 방법론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두 모델 방법이나 기원과학이라는 논의의 틀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과학적 법칙에 입각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창조론의 합리성과 진화론의 비합리성을 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이들은 ‘창조의 변증학’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무리없이 창조과학회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 결 론

기원논의를 과학과 관련시키는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살펴 보면서, 특별히 미국과 한국의 창조과학회가 논의의 틀로서 채택하고 있는 ‘과학적 창조론’이 과연 창조과학회의 목적과 구체적 활동들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서 ‘과학적 창조론’이 대외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과학주의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점과 복음전파라는 목적에 대해서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데에 제약을 갖고

17) Werner Gitt, "The biblical teaching concerning creation", (in E. H. Andrews, W. Gitt, and W. J. Ouweneel ed., "Concepts in Creationism", Evangelical Press, England) (1986).

18) L. Duane Thurman, "How to Think about Evolution & Other Bible-Science Controversies", IVP, Downers Grove, Illinois (1978).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창조과학회의 목적과 논리와 구체적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틀로서 '창조의 변증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틀은 과학적 창조론이 갖고 있는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과 성경의 계시 간의 적절한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창조과학회의 모든 활동들을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던 창조과학회의 활동은 '창조의 변증학'이라는 틀이 적절하게 규정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창조의 변증학'의 시급한 과제는 기원논의에 있어서 과학의 역할과 세계관의 역할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룹 내에 과학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이해한 기초 위에서 반진화론의 논리전개와 창조론의 과학적 변증이 이루어져야 보다 큰 설득력을 지닌 주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 参考文献

1. Bowler, Peter J., "EVOLUTION - The History of an Id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 (1989)
2. Brooke, John Hedley, "Science and Religion : Some Historic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Great Britain (1991)
3. Frye, Roland Mushat ed., "Is God a Creationist ? ",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1983)
4. Geisler, Norman L. and J. Kerby Anderson, "Origin Science : A Proposal for the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chigan(1987)
5. Gitt, Werner, "The biblical teaching concerning creation", (in E. H. Andrews, W. Gitt, and W. J. Ouweneel ed., "Concepts in Creationism, Evangelical Press, England")(1986)
6. Johnson, Philip E., "EVOLUTION AS DOGMA-The Establishment of Naturalism", Houghton Publishing Company(1990)
7. Lindberg, David G. and Ronald L. Numbers ed., "God and Nature : Historical Essays on the Encounter between Christianity and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1986)
8. Mayr, Ernst, "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1982)
9. Moreland, J. P., "Christianity and the Nature of Science :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chigan (1989)
10. Ratzsch, Del, 김해진 역, "과학철학-자연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0)
11. Ruse, Michael, "But Is It Science ? -The Philosophical Question in the Creation/Evolution Controversy", Prometheus Book, Buffalo, New York (1988)
12. Thurman, L. Duane, "How to Think about Evolution & Other Bible-Science Controversies", IVP, Downers Grove, Illinois (1978)
13. Wilcox, David L., "A Taxonomy of Creation", J. of THE AMERICAN SCIENTIFIC AFFILIATION 38 : 244-250 (1986)
14. Wright, Richard T., "Biology Through the Eyes of Faith", Christian College Coalition, Harper SanFrancisco (1989)
15. Wysong, R. L., "CREATION-THE EVOLUTION CONTROVERSY", INQUIRY PRESS, Midland, Michigan (1976)